

규장각 소장 『경상도명승도』 고찰

김 종 태 *

-
- | | |
|---------------------|---------------------|
| 1. 머리말 | 4. 병풍의 제작과 증여 인물 추정 |
| 2. 『경상도명승도』 각 폭의 내용 | 5. 맷음말 |
| 3. 『경상도명승도』의 특징과 의미 | |
-

초록: 이 논문은 규장각에 소장된 『경상도명승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며 병풍 제작을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병풍에는 慶尙 左道와 右道에서 각각 4곳을 선정하여 총 8곳의 명승을 그리고 각 폭의 상면에 제화시를 적어 놓았다. 각 폭에는 차례로 통영의 挽河亭, 안동의 映湖樓, 합천의 海印寺, 진주의 爛石樓, 거창의 搜勝臺, 동래의 没雲臺, 밀양의 嶺南樓, 포항의 內延山이 실경 산수화풍으로 그려져 있고, 제화시를 쓴 작가는 차례로 徐有鳳, 李善祚, 徐相鵬, 尹必觀, 尹必觀, 尹徵觀, 金斗甲, 崔映湜인데, 윤필관은 두 폭에 제화시를 썼다.

첫 폭 〈挽河亭〉에는 장편 7언 고시를 적어 다른 폭에 비해 비중이 높고, 통제영이 설치된 지 300년이 지났다는 내용이 있어 병풍의 연대 추정에 도움을 준다. 제화시를 쓴 작가 중에 徐相鵬은 문헌에서 확인되지만 기타 인물은 차후의 고찰이 필요하다.

이 병풍과 관련하여 吳宜默은 영호루, 수승대, 내연산을 제외하고 『경상도명승도』에 포함된 명승을 직접 유람하고 시를 남겼으며 특히 만하정에 대해서는 연작시 1편과 7언 율시 1편을 남기고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1893~1894년 동안 固城府使를 역임함 점, 우리나라 읍지를 정리한 『輿載撮要』를 편찬한 점, 그리고 경상도 일대를 유달리 많이, 자주 답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병풍의 제작과 증여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제영은 1895년에 폐지되는데 병풍의 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이 병풍은 임란 300년이 지난 1892년에서 1895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제화시에 관찰사와 관련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오횡묵이 『여재촬요』의 서문을 받고 교유가 깊었던 李鑑永에게 선물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후임 관찰사 李容直에게 선물하거나 오횡묵 자신이 遞差될 때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병풍은 그림 솜씨를 두루 살펴볼 때 지방 화원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 문화의 자부

*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심과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실용적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 金允兼의 『영남명승첩』을 있는 영남 명승도로 전통 문인화의 화풍이 배어있는 작품이다. 삼베를 재질로 한 드문 병풍이다.

핵심어 : 慶尙道名勝圖, 吳宜默, 李金+憲永 觀察使, 實景圖, 文人畫, 題畫詩.

1. 머리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경상도명승도』라고 명명된 8폭 병풍이 소장되어 있다.¹⁾ 이 병풍은 현재 홈페이지에서 원문보기가 되어 있어 누구나 그림과 제화시를 살펴볼 수 있다. 병풍은 전체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크기는 190×394cm^o이고 개별 작품의 폭도 38×136cm로 상당히 규모가 큰 편이다.²⁾〈그림 1〉



〈그림 2〉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병풍 전체, 19세기 말~ 20세기 초,
마본수묵담채, 190×394cm. 규장각.

-
- 1) 청구기호는 古貴 915.15-G998b이다. 이 병풍의 표제에 『경상도명승도』라고 되어 있는데, 『영남팔경도』 등으로도 명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고 이 병풍을 그런 화가 등이 밝혀지기를 우선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대로 『경상도명승도』라 지칭한다.
 - 2) 실제 각 폭의 크기를 채어 보면 세로는 같고 가로는 70~70.5cm정도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최근 개장을 한 것으로 보여 실제 그림 폭 보다는 작게 보인다.

화면은 크게 상하로 양분되어 하단에 그림을 그리고 상단에 제화시를 써 놓았다. 그림은 고운 삼베(麻) 바탕에 그려져 있으며, 오래 펼쳐둔 탓에 오염도 많이 되었고 바탕의 올에도 손상이 적지 않다. 다만 화제는 글자를 알아보기에 그다지 무리가 없을 정도로 크고 선명한 편이나 올의 손상으로 초서로 된 글자는 잘 알아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림은 한 사람의 작가가 그린 필치로 보이고 글씨는 제화시를 쓴 사람이 각각 쓴 것으로 보이는데 행초서로 되어 있다. 제 1쪽 〈挽河亭〉은 7언으로 된 長篇古詩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의미화가 두르러지며 이 병풍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 병풍의 8면은 각각 통영의 挽河亭(題畫詩 徐有鳳), 안동의 映湖樓(제화시 李善祚), 합천의 海印寺(제화시 徐相鵬), 진주의 磨石樓(제화시 尹必觀), 거창의 搜勝臺(제화시 尹必觀), 동래의 没雲臺(제화시 尹倣觀), 밀양의 嶺南樓(제화시 金斗甲), 포항의 內延山(제화시 崔啖湜)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면을 크게 삼등분할 때 아래 양단에는 각 명승의 실경 산수화를 그려 놓고 그 윗면에는 행초서로 시를 적어 놓았다. 그림을 보고 시를 지은 것인지 시를 보고 그림을 그린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자료는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고 그림을 그린 작가와 시를 쓴 작자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으며, 화제시의 내용도 제대로 소개된 바 없다.³⁾

이 『경상도명승도』를 그린 목적과 경상도의 명승으로 이 8곳을 선정한 배경이 우선 궁금하고 實景山水畫의 맥락 속에 있으면서도 중국의 오파 문인화의 영향이 배어있는 점, 화제시의 분량이 여타 실경산수화에 비해 매우 많은 점이 눈에 띈다.

필자는 이런 점에 착목하여 이 병풍을 살피고 관련 문헌 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본 작품에 충실하여 각 화면의 그림과 제화시의 내용을 알아본다. 이어 『경상도명승도』 병풍의 특징과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병풍 제작 연대와 관련한 인물, 그림을 그린 화가와 시를 쓴 문인을 추정해 본다.

3) 규장각 해제에는 그림의 크기와 화제시의 작자를 저록하고 있다. 수승대 폭의 제화시는 거창문화원 학예사가 소개한 것이 인터넷에 보이는데 한시 번역은 원의와 많이 다르게 되어 있다.

2. 『경상도명승도』 각 폭의 내용

1) 挹河亭⁴⁾



〈그림 3〉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1폭 <만하정>⁶⁾

8×136cm.

만하정은 통영성의 南門 清南樓 우측⁵⁾ 성벽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폭과 달리 화면 상단의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여타 문헌에서 만하정을 다룬 이런 장편을 찾아보기 어렵다.〈그림 2〉

그림의 상단에는 험준한 산을, 하단에는 바다와 연접된 만을 드러내고 그 중간에 성벽과 벼랑을 오른편 아래로 비스듬한 구도로 그려 험준한 요새지임을 드러내었다. 그림의 중심부 성벽 위에 있는 건물이 통영성 남문 청남루이다. 성 안과 밖은 인가가 빼곡하여 번성을 드러내었다. 남문의 윗면 높은 벼랑 위에 만하정이 기둥이 선 누각 형태의 건물로 서 있다. 만하정 안에는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앉아 있다. 주변의 인가와 동떨어져 자못 호젓한 운치가 있다. 성문 밖 내항에는 배가 서너 척 정박해 있다. 성 안에 있는 건물의 표현은 볶음을 세워 중봉을 취해 지붕을 묘사하고 있는데 釘頭鼠尾의 방법이다. 만하정과 청남루 부분의 묘사가 더 세밀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 4) 만하정은 통영에 소재하며 1872 채색필사본 『지방도』 수록된 〈통영지도(68×114)〉를 보면 통영성의 남문 清南樓의 서편 성벽 위에 건립된 누각 형태의 건물이다. 『韓國近代邑誌』32 『統營軍誌』『亭齋閣』조에 만하정이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만하정은 靖海亭의 동면에 있다. 정조 9년 을사년(1785)에 통제사 李邦一(1724~1805)이 건립하였는데, 산과 바다의 形勝이 千尺樓와 함께 이름을 떨쳤다.” 이방일은 1785년 1월에 부임하여 그 해 11월까지 대략 1년 정도 재임하다 교체되었다.
- 5) 방위 개념은 각 건물의 본당에서 남향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통제영의 중심 건물인 세병관을 등지고 서서 그 전면에 남문이 있고 우측에 만하정이 있다.
- 6) 이하 『경상도명승도』 사진 도판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선

만하라는 이름이 은하수의 물을 뜯다는 뜻이므로 이 지형에 어울리는 이름이다. 만하정이라는 이름은 통제영의 客舍 洗兵館과 함께 두보의 시『洗兵馬行』의 끝 구절 “어떻게 하면 장사를 얻어 은하수를 끌어와 갑옷과 병기를 깨끗이 씻어두고 영원히 쓰지 않을꼬.[安得壯士挽天河, 淨洗甲兵長不用?]"라고 한 데서 온 말로, ‘挽天河’와 ‘洗甲兵’에서 각각 가운데 글자를 따내고 서로 조응을 하여 지은 것이다.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3>



<그림 4> 만하정 글씨 부분.

統制帥府開南維
五百戰艦三萬帥
地軸入海垂斗柄
樓觀挽河洗載枝

통제영의 원수부 남쪽에 설치하니
오백 척 전함에 삼 만병 수군이라네
지형은 바다로 들어가 북두성 자루 같고
누각은 은하를 끌어와 창날을 씻을 듯하네

명한 사진을 도판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준 서울대 규장각에 감사드린다.

輶門擊柝以固圉
 浦港噉舟若臨危
 經制設置雄且壯
 問是當時大將誰
 宣武元勳李忠武
 風雲韜略熊虎姿
 露梁一戰勢初振
 碧波單舸功絕奇
 最是合圍閑山島
 剔鼈捉魚漆齒兒
 遂遏狂鋒淨海氣
 龕膺蕃錫皇恩垂
 銅印交輝鬼頭劍
 豹牌排行督戰旗
 特設班位絕諸師
 仍徙營府管三陲
 至今昇平三百載
 風濤不作鵠鵬池
 嶺南大帥觀風路
 建牙樹纛張威儀
 閥武仍欲飾盛觀
 併坐樓舡天上疑
 戚南宮書禦倭術
 陸鍊水操依樣爲
 須臾制勝堂下泊
 歌扇舞袖紛相隨
 豪飲不覺日西下
 去來都與潮信期
 神箭飛砲滿天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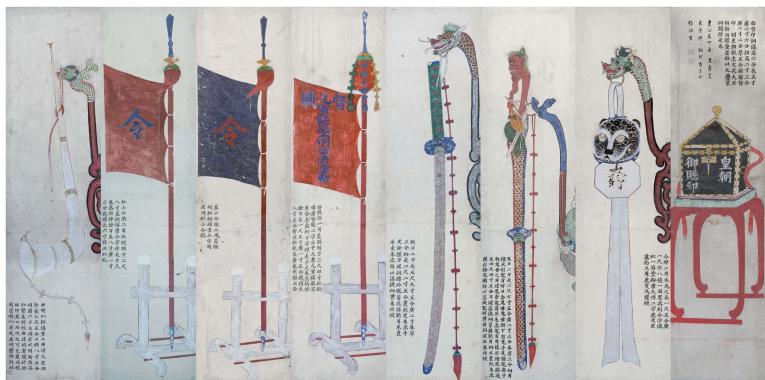
원문에선 땡따기 치며 방비를 튼튼히 하고
 포구에 폐어 있는 배는 위기를 대비하네
 통제영 만든 규모 웅장하고도 장엄하니
 문노니 당시의 대장은 누구시던가?
 선무 원훈에 빛나는 충무공 이순신으로
 군진의 도략 품어 응호 위용 지니신 분이지
 노량 일전⁷⁾으로 형세가 처음 떨치더니
 벽파진에서 한 척 배로 기절한 공 세웠네⁸⁾
 최고 전승은 적을 포위한 한산 해전인데
 자라와 물고기 잡듯 왜적을 쳐부수었지
 마침내 적의 창칼 막아 바다를 깨끗이 하니
 명황제의 총애로 하사품도 많이 받았지
 구리 인장에 두 자루 빛나는 귀두검과
 표범 조각 영패에 짹 지은 독전기라네
 여러 군대 중에 특별히 관직을 만들고
 통제부를 옮겨 세 바다를 관할하였네
 지금까지 태평세월 삼백년이 지났는데
 남쪽 바다에선 바람과 파도 일지 않네
 민정을 살피려 영남 절도사 부임하는 길에
 아기(牙旗) 둑기(纛旗) 세우고 위의를 벌렸네
 무예 훈련은 성대한 경관을 돋보이게 하는데
 함께 누선에 앉으니 천상에 있는듯하네
 척계광의 명서는 외적 막는 방책이니
 육군 훈련 수군 조련을 이대로 해야 하리
 잠깐 만에 제승당 아래 배를 정박하니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 분분히 따르네
 호기롭게 마시느라 날 저무는 줄도 모르는데
 오가는 것을 모두 조수 시간에 맞추어 하네
 신전과 비포 광경 천지에 가득하고

- 7) 노량 일전 : 이 전투는泗川 해전을 가리킨다. 이순신은 여수 좌수영을 출발하여 노량 해협을 지나 사천 앞 바다에서 왜군과 전투를 벌였고 이 해전에서 거북선을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해전의 공으로 이순신은 정2품 정현대부에 오르게 된다. 이항복이 쓴 「全羅左水營大捷碑」에 “玉浦之戰·露梁之戰·唐浦之戰·栗浦之戰·閑山之戰·安骨之戰·焚燒賊船二百二十餘艘，斬首五百九十餘級，溺水死者，又不記其數，賊死咋不敢近公寨下，因陣閑山，以遏賊衝。”라고 쓰인 문맥에서 입증된다. 『이충무공전서』 권10
- 8) 벽파진에서 세웠네 : 벽파진은 진도의 명량으로 이곳에서 이순신은 초기 전투에서 대장선 1척으로 왜적을 가로막아 싸웠다.

城炬浦燈放一時
黃昏發砲到鶴唱
努力人牽百丈絲
水嬉灯戲何足道
海邦壯觀止於斯
文人弱管代雄劍
凱歌聲鬱島山詩

성과 포구에 횃불이 일시에 켜지네
황혼에 총을 쏘아 새벽까지 이르고
힘을 들여 사람들 큰 배의 끈을 당기네
불놀이와 등불놀이 말할 게 있겠는가
바닷가의 장관이 여기에 다 모였네
문인의 약한 봇으로 보검을 대신하니
개선가 소리에 한산도 시로 화답하네

상평성 지(支) 자 운을 쓴 7언 장편이다. 시는 크게 만하정의 내력과 충무공 이순신의 업적, 그리고 제승당 아래서 벌이는 밤 뱃놀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른 폭과 달리 이 시는 길이가 특별히 길고 또 제1폭에 위치하며 다른 명승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 병풍을 그린 사람은 만하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또 통제사나 관찰사를 수행하는 문인과 관련이 있을 것임도 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시를 쓴 徐有鳳의 행적은 상고하지 못하였다. 화면상으로는 시를 쓴 저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실물을 보면 글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 시 본문 중에 명나라 황제가 내린 하사품은 187대 통제사를 지낸 申觀浩(1810~1888)가 제작한 『八賜品圖』 병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5〉 申觀浩, 『八賜品圖』 8폭 병풍, 1861년, 전체
239×532(각폭 181×45), 통영 충렬사⁹⁾

9) 사진 자료를 협찬해 준 통영 충렬사에 감사드린다.

2) 映湖樓



<그림 6>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2쪽 〈영호루〉,

38×136cm.

영호루는 현재 위치와 달리 예전에는 맞은 편 강가에 서 있었는데 이 그림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정중앙에 영호루를 배치하고 그 앞으로 낙동강이 흘러간다. 영호루 안에는 3사람이 앉아 있다. 벼드나무는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 뒤로 누여져 있어 정자 안에 앉은 사람이 시원할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면 하단의 바위는 큼직하고 선염을 하여 음영을 표현하였다. 큰 바위와 소나무를 그려 유서 깊은 고을의 연륜과 기상을 드러내었다. 맞은편은 불어난 물에 침식된 벼랑이 있고 그 너머 산기슭에 인가가 2채 있고 그 뒤로 산들이 칩첩 둘러싸 있다. 낙동강은 오른면 위에서 갈지자 형태로 꺾어지며 흐른다. 화폭에선 이 강을 상당히 비중 있게 그려 누각의 명칭을 시각적으로 보였다. 제법 큰 물고기들이 그 안에 서식하고 있을 것 같다.

華構曾經浩劫多
緣有二十九年加
麗王避地如南渡
圃老於詩亦大家
憇官堤悲舊柳
清明客路少飛花
傳廚風味真佳絕
鱠玉新登縮項槎

아름다운 누각 지은 지 오랜 세월 지나
인연 따라 이십구 년 만에 다시 와 보네
공민왕은 난리 피해 이곳으로 내려왔고
정몽주는 시에 있어 또한 대가라 하지
초췌한 날 고을 제방의 옛 벼들은 애잔하고
청명절 나그네 길 날리는 꽃잎도 적어라
부엌에서 날라 온 풍미 정말로 맛 좋은데
회와 쌀밥 새로 올라 축향사두¹⁰⁾와 같네

李善祚가 지은 시로 운자는 하평성 麻 운을 따르고 있다.

이 시는禹倬의 「映湖樓」, 辛肅(신천)의 「福州映湖樓」, 田祿生과 金宗直의 「映湖樓」

10) 縮項槎頭는 살지고 맛좋은 물고기 이름으로, 槎頭縮頸鯿이라고도 한다. 등이 활처럼 휘고 청색을 띠고 있으며 회 맛이 특히 좋다고 하는데, 唐나라 시인 孟浩然의 「峴潭作」과 杜甫의 「解悶」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졌다.

次韻』 등에 쓰인 운자와 그 순서까지 같다는 점에는 樓亭題詠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시는 공민왕의 피난과 정몽주가 쓴 시를 회고 자료로 다루고 자신의 서정을 불였다.¹¹⁾

3) 海印寺

해인사는 가야산에 있다. 궁륭하게 생긴 가야산 아래 해인사 건물군락이 상단에 계단식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안에 3층 석탑이 축대 아래 그려져 있다. 그 좌우로 좌청룡 우백호의 산봉이 매우 가파르다. 그 사이로 홍류동 계곡이 갈지자의 초서 형태로 길게 흘러내린다. 계곡 폭이 점점 넓어지고 나무와 바위도 그려하여 원근법이 강하게 느껴진다. 계곡 양 옆은 바위로 된 쟁안이 형성되어 있어 계곡을 따란 난 길과 상당한 낙차가 있다. 계곡에는 총 4개의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건너가는 유람객이 위와 아래에 각각 2명이고 篓山亭에 앉아 있는 사람이 1명, 계곡 낭떠러지에 앉아 물을 보는 사람이 1명이다. 계곡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길은 톱니바퀴와 같은 濡勢를 보인다. 길과 계곡 양 옆에 늘어선 바위들이 일대 장관을 연출한다. 다리의 표현과 건너가는 사람은 오파 문인화의 화풍과 닮아 있다.

居平靈界夢魂迷
及老真身到得齊
萬象森羅香水海
千峰巒匝白雲溪
脫簾故事僧樓上
佔畢遺墟內院西
對雨吟望何所見
殿頭突兀塔身低

평소에 영계를 꿈에서도 가보고 싶더니
늘그막에 이 몸이 직접 여기에 와 보네
만상은 향수의 바다에 두루 펼쳐져 있고
천봉은 흰 구름 계곡을 빙 둘러싸고 있네
도통이 벗던 고사 절집 누각서 생각나고
김종직의 유허는 서쪽 내원사에 남아 있네
비를 마주하여 말없이 무엇을 보는가
전각은 우뚝 솟고 탑의 몸체는 낮구나

11) 공민왕은 홍건적의 난을 제압하고 환도한 뒤 금으로 만든 현판을 내려주었는데 김종직은 중수기에서 이점을 강조하였다. 공민왕의 현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으며 정몽주가 쓴 시는 「安東映湖樓 回自日本作」으로 다음의 7언 율시이다. 開遍東南郡縣多, 永嘉形勝覺尤加. 邑居最得山川勢, 人物紛然將相家. 場圃歲功饒菽粟, 樓臺春夢繞鶯花. 直須酩酊終今夕, 萬里初回海上槎. 현재 영호루에 시판으로 걸려 있다.



〈그림 7〉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3폭
〈해인사〉, 38×136cm.

진 사람이 高宗代 『承政院日記』를 살펴보면 1900년(광무4)에 농상공부 주사로서

徐相鵬이 시를 썼는데, 상평성 齊 자 운통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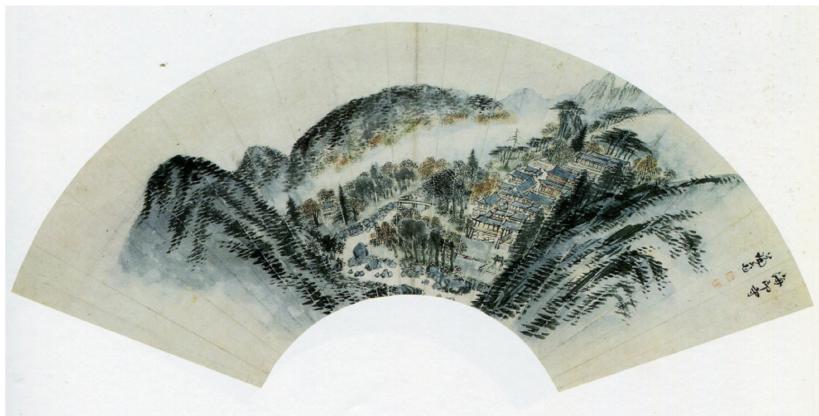
항수의 바다, 즉 香水海는 해인사를 가리킨다. 崔致遠의 『孤雲集』에 '海印'이란 어휘의 원문 주석에 「會玄記」의 말을 인용하여 “칠보로 만든 산 가운데 염부제가 있는데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일체의 모든 물상이 그 바다에 뚜렷이 드러나는데 이를 해인이라 한다.”라고 한 대목이 있다.¹²⁾ 즉 해인사의 해인이란 말이 염부제라는 호수에 도장이 찍히듯 삼라만상의 물상이 비친다는 의미를 드러낸과 동시에 해인사에서 조망되는 전경을 묘사한 것이다.

도롱이를 벗는 고사는 曺植이 成悌元과 보은에서 만난 뒤에 다음해 8월 15일에 해인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당일 조식이 장맛비를 맞으며 도착해보니 성제원이 막 도롱이를 벗고 있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金宗直은 한 때 해인사에 머문 적이 있다. 内院庵에는 당시 螺和尙이라 불리는 승려 王明이 거처하고 있었는데 시를 잘 짓고 춤을 추며 내원암 앞에 뜻을 파고 좌우에 蘿月軒과 鈞賢堂이라는 암자를 지어 그곳에서 지냈다. 당시 가야산에 머물던 金宗直이 그와 깊이 교유하였는데 이런 사실이 寒岡 鄭述의 「遊伽倻山錄」, 金駟孫의 「釣賢堂記」, 그리고 짐필재의 문집에 실린 「나월헌 명상인에게 주다[贈蘿月軒明上人]」 등에 보인다.»

제화시를 쓴 작가를 상고하기가 어려운데 이 시를 쓴 서상봉 역시 그러하다. 다만 徐相鵬이란 이름을 가

12) 『孤雲集』 권3 「智證和尚碑銘」. 七寶山間香水海中閣浮提, 有情無情, 一切物像, 炳現其中, 故謂之海印.

度支部各項文簿調查委員을 겸임하였으며, 1904년(광무8)에는 永平郡守, 1906년에는 光陽郡守에 임명된 政事 記事들이 보이고 있어 참고가 된다. 광양군수 역임 이력은 달성서씨 족보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여기 나오는 서상봉은 해인사와 그리 멀지 않은 고을인 광양군수를 역임한 점, 그의 형 相鶴이 시집을 남긴 점, 그리고 생존 시기가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와 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해인사 폭의 제화시를 쓴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¹³⁾ 해인사는 겹재 정선의 그림이 있어 참고 자료가 된다.¹⁴⁾



〈그림 8〉 〈해인사〉, 1734년 경, 지본수묵담채, 23.1×67.7, 선면(扇面),
국립중앙박물관

13) 徐眞錫 발행, 2003 『大邱徐氏世譜』, 뿌리문화사, 권1 161~162. 서상봉은 시조 徐閑으로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인물로, 아버지는 徐應淳이고 相鳳, 相鶴, 相鴻에 이은 4형제 중 막내이다. 그의仲兄 상학은 南陽郡守를 지내고 시집 3권이 집에 보관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韓國系行譜』人卷 2182면에는 상봉과 상학만 수록되어 있어 서상봉은 가문에서 그리 내세울만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輿載撮要』발문을 쓴 인물 역시 徐相鳳인데, 이 사람은 해인사 시를 쓴 徐相鵬의 형이 아닌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徐相鶴의 형 서상봉은 부친이 徐應淳이지만 문과 급제한 서상봉은 부친이 徐相集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系行譜』와 관련 족보를 살펴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아 확정하기 어려운데, 서상봉 역시 차후 고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14) 도판 목록의 〈그림 10〉 참조.

4) 窟石樓



〈그림 9〉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4폭

〈총석루〉, 38×136cm.

총석루는 화면 전면에 義巖과 함께 뚜렷이 그려져 있다. 총석루 주변의 성벽을 유난히 튼튼하면서도 세밀하게 그려 시선을 주목하게 한다. 화면은 원면 위에서 오른면 아래로 대각선으로 구획하여 진주 남강이 평펴짐하게 모래톱 사이를 지나 총석루 아래서 절벽을 만나 깊어진다. 그 우측에는 진주성이 자리 잡고 있다.

우측 맨 아래의 누문이 진주성 南門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문이 窟石門이다. 총석루를 지나 뒤에 기와집 군락이 運籌堂을 중심으로 한 慶尙右兵營이고 뒤에 보이는 망루는 西將臺, 우측의 누각은 鎮南樓로 보인다. 총석루는 성벽 위에 우뚝이 그려져 있고 그 우측에 논개의 사당인 義妓祠가 있고 총석루와 의암 사이에 義巖史蹟碑閣이 보인다. 의암 옆에는 亭船 1척이 정박해 있다.¹⁵⁾ 그 앞에 배놀이 하는 배가 한 척 떠 있는데 사공은 노를 밀어 강으로 나가고 유객은 세 사람이 탔다. 건너편에는 대나무를 그려 실경 이상의 운치를 더하였다.

15) 亭船은 정자가 배 안에 달린 배를 말한다. 이 정선은 여러 「晉州城圖」의 大寺池 凝香亭 옆에도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右兵使나 晉州牧使가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진주박물관 소장, 계명대행소박물관 소장1,2, 동아대박물관 소장1,2, 부산대박물관 소장, 서울대규장각 소장, 서울대박물관 소장, 인천광역시립송암미술관 소장, 전쟁기념관 소장,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2에도 같은 위치에 이 정선이 보여 주목된다. 『진주성도』, 진주박물관, 2013 참조.

縠羅皺碧晉江流
 兒女紅粧映綠洲
 劫後關防留舊堞
 嶺南佳麗盡茲樓
 居人久識昇平樂
 志士還饒弔古愁
 日暮催舟城下汎
 衣香露浥徹宵游

비단 논밭 푸른 물결 진주 남강 흐르는데
 붉은 치마 처녀애들 푸른 모래톱에 비치네
 난리 뒤의 요새지엔 옛 성첩 남아 있고
 영남의 아름다운 풍광 이 누각에 다 모였네
 백성들은 오래도록 태평의 즐거움을 알지만
 지사들은 오히려 옛날 회고하는 슬픔에 젖네
 해질녘에 배를 재촉해 성벽 아래 띄우니
 옷에 찬 향¹⁶⁾ 이슬에 젖도록 밤새도록 노네

尹必觀이 이 시를 썼는데, 하평성 尤자 운통을 따랐다. 김종직이 쓴 「蠶石樓雨後」, 「和鄭敬差 永通蠶石樓所寄」와 爾好仁의 「次蠶石樓韻」과 운이 같다. 영호루, 촉석루, 영남루 등은 전인의 운을 따라 시를 짓고 있어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광여도』에 수록된 「진주목」 지도와 19세기에 그려진 「진주지도」, 『해동지도』 「진주목」(1730) 등을 보면 촉석루가 진주 지도의 정 중앙에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상 촉석루와 함께 義巖을 그리는데 여기도 역시 그러하다. 이를 통해 촉석루가 진주의 상징적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암 옆에 그린 亭船은 19세기에 제작된 「晉州城圖」에서 대부분 실견할 수 있는 것이라 소품의 전형화가 관심을 끈다.¹⁷⁾

5) 搜勝臺

거창에 있다. 수승대 중심 부분은 아래에 배치하고 윗부분은 험준한 산을 그려 놓았다. 樂水亭 주변에는 오래 묵은 소나무를 그렸는데 정자 안에 사람이 1명 앉아 있다. 거북 바위 주변엔 통통한 소나무 4 그루가 호위하듯 서 있고 정상에는 두 나그네가 앉아 있다. 수승대 뒤에는 매우 큰 바위가 있다. 그 우측은 평평한 들판인데 물은 바위 벼랑을 따라 흐른다. 계류 우측에는 龜淵書院과 觀水樓 건물이 보이고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구연서원과 요수정으로 왕래하는 길에 다리가

16) 예전 고관이나 귀족들은 항주머니를 몸에 차고 다녔다. 衣香은 보존을 목적으로 의롱 속에 넣기도 하고 방향을 목적으로 가마에 걸거나 옷에 차고 다니기도 한다.

17) 紀行寫景圖의 전형화된 구성과 소재는 박은순 2002 「眞景山水의 觀點과 題材」 273면 참조.



〈그림 10〉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5폭 〈수승대〉,

38×136cm.

있다. 특이하게도 물이 시작되는 지점의 바위 벼랑에 사람이 한 명 올라가 있다.

誰識觀風路

居然清興長

車裳占澗留

冠蓋駕林光

犀照潭如鏡

龜盤石可牀

紅裙文字飲

却恨此宵忙

관찰사로 부임하는 맛을 누가 알려나

가는 길에 어느덧 맑은 흥이 일어나네

수레와 관복은 계곡에서 튕기는 물방울에 젖고

모자와 일산은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어둑하네

바다이 보일 듯한 연못은 거울처럼 맑고

거북처럼 생긴 바위는 평상처럼 앉을 만하네

기생과 함께 시 지으며 술을 마시니

이 밤이 바빠 가는 게 오히려 한스럽네

尹必觀이 시를 썼는데, 하평성 陽 자 운을 따랐다. 3번째와 4번째 구절은 수레의 아랫부분과 옷의 아랫도리를 계곡의 물과 연결하고 관모와 일산을 햇살과 연결하여 수사적 수준이 매우 높다. 이 시에 지방 관찰사의 부임을 의미하는 觀風路라는 말이 보이고 첫 시 「만하정」에서 쓴 '嶺南大師 觀風路'란 구절에도 '觀風'이란 표현이 보이고 있어, 이 시를 쓴 시인들이 이 시를 감상할 중요한 독자로 관찰사를 상정하고 그에 대해 매우 유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6) 没雲臺

몰운대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여 항상 안개가 낀다. 갈지 자 형상으로 바다로 자루처럼 툭 튀어나온 낭떠러지 끝에 두 유람객이 한가한 태도로 각자 지팡이를 짚고 마주보고 서 있다. 머리에는 작은 관을 쓰고 도포 차림을 하고 있다. 유람객의 시선이 닿는 정면 바다에 두어 개 섬이 있는데 허리에 감싸고도는 구름을 그려 몰운대의 뜻을 풀이하였다. 몰운대와 섬 사이로는 두 폭의 뜻을 단 배가 지나가는데 사공은 1명만 보인다. 먼 대



〈그림 11〉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6폭
〈물운대〉, 38×136cm.

『경상도명승도』를 보면 임진란 초기의 부산진과 다대포진에서의 처절한 항전을 중심으로 그 리면서도 원면 아래 물운대가 그려져 있고 그 곳에 ‘鄭萬戶運碑’가 비각 안에 큼직

양에도 둑을 4개 그려 그 곳이 너른 바다임을 알게 한다. 소나무의 상단은 꺾여 있어 오파 문인화풍을 띠었고 사물의 모습을 흐릿하게 그려 안개에 휩싸인 선경을 드러내었다.

長空如水淨無雲
馬島茫茫指未分
往蹟龍蛇先入想
連鷁鷄犬若相聞
山形熨斗坤之柄
人立春鋤島一群
歎息臺名終應識
殘碑落碧對斜曛
——尹徵觀

넓은 하늘 바다와 같아 구름 한 점 없는데
대마도라 흐릿하여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네
임진란의 지난 자취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이웃한 촌락에선 닭과 개 소리 서로 들리네
인두 같은 산 형세에 자루 모양 지형인데
사람들 백로처럼 서서 여러 섬들 구경하네
대 이름이 끝내 도참에 맞은 것 탄식하거니
이끼 긴 채 퇴락한 비석 석양 속에 서 있네

尹徵觀이 썼는데 상평성 文 자 운을 따랐다. 6구의 ‘春鋤’는 백로가 물을 건널 때 머리를 까닭거리는 모습이 마치 절구질이나 팽이질을 연상시켜 붙여진 말인데, 물운대에서 선계와 같은 풍경을 감상하느라 유람객이 목을 빼어 이리저리 보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재미나는 표현이다. 후반에는 임진왜란 때 물운대에서 전사한 鄭運의 고사를 썼다. 정운은 이순신의 선봉으로 물운대를 지나다가 마음이 떨리고 자신의 이름 ‘運’과 물운대의 ‘雲’이 음이 같으므로 여기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자신이 죽더라도 적에게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元景夏의 『蒼霞集』 「鹿島萬戶鄭公墓誌銘」과 尹鑄의 『白湖全書』 「諸將傳」 등에 나온다. 1834년에 李時訥이 그린 『임진전란도』를 보면



〈그림 12〉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7폭
〈영남루〉, 38×136cm.

하게 서 있으며, 정운이 수행한 부하 2명과 함께 서 있고 그 옆에는 타고 온 녹도 전선까지 그려 놓아 당시 사람들의 정운에 대한 애정과 인지도를 알게 한다.

7) 嶺南樓

밀양에 있다. 밀양강을 굽어보고 있는 영남루의 웅장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림이다. 언덕에 위치한 영남루의 여러 건물을 세심하게 그렸다. 영남루 뒤로는 번성한 고을의 모습과 산들이 펼쳐져 있다.

뒤의 산은 중첩하여 그렸는데 전면은 흙산으로 산정이 불룩하고 후면의 산은 끝이 뾰족한 바위산이다. 강안 바위 벼랑 위에 영남루가 그려져 있는데 건물이 여러 채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정면의 가장 큰 객사 건물에 두 명의 사람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 곁에 딸린 여러 채의 건물이 웅장하다. 뒤로도 큰 산을 배경으로 밀양도호부 정문과 동헌이 그려져 있다. 강을 건너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그림 하단에 그려져 있고 강에는 손님들이 탄 배가 경쾌해 보인다. 그 안에는 갓을 쓴 선비와 승객들이 보이고 노를 잡은 사공이 긴 삿대를 힘차게 젓고 있다. 화면 하단에는 촉석루 그림에서처럼 정자가 달린 배가 한 척 매어 있다.



〈그림 13〉 〈영남루〉 누각 부분

金碧樓明蘸水天
嶺南風物落樽前
烏紗影壓江鷗上
紅杏花飛駟馬邊
芳杜春深連漲雨
垂楊人隔數家煙
黃昏易得佳期遠
獨自舍情倚錦筵

하늘 비친 강물에 금벽루¹⁸⁾ 훤히 서 있으니
영남 풍물이 술동이 앞에 다 모였네
오사모의 그림자 강 갈매기 위에 비치고
붉은 살구꽃 수레 끄는 말에게 날리네
향기로운 풀은 연일 내린 비로 봄빛 깊어지고
수양버들 너머 몇몇 인가에 연기가 피어나네
황혼은 쉽게 얻지만 아름다운 기약 요원하여
홀로 정을 머금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네

이 시는 金斗甲이 썼는데 하평성 先자 운을 따랐다. 이승인의 「영남루」 서거정의 「밀양 영남루시를 차운하다 [次韻密陽嶺南樓]」등에서 같은 운자를 쓰고 있다. 遊觀 河峯의 「영남루」, 權應昌의 「題嶺南樓」에서도 같은 운자를 쓰고 있다.

18) 영남루가 서 있는 자리에는 원래 신라시대에 嶺南寺라는 절이 있었다. 고려 때에 종각 이름이었던 이 金碧樓만 남았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8) 内延山



〈그림 14〉 작가 미상
『경상도명승도』 중 제8폭
〈내연산〉, 38×136cm.

포항에 있다. 내연산 중심부에 폭포를 그려 내연산 승경의 핵심이 폭포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겸재 정선이 그린 〈内延山三龍湫〉 그림 2폭을 떠올리게 한다.¹⁹⁾ 폭포 아래 용추 곁에는 두 사람이 시원하게 폭포를 관람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 폭포를 향해 가는 사람을 그렸다. 바위 사이로 폭포의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진다. 폭포 아래 물이 용소에 쏟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한 유객이 정좌해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 그 면으로 지팡이를 짚은 유객이 올라가고 있다.

曾誰置嶺又標峯	누가 고개를 만들고 또 봉우리도 세웠는가
獨數三潭第一春	두세 개 연못에 제일가는 폭포 있네
雲壁四圍棲老鶴	사방을 둘러싼 구름 벽에 늙은 송골매 것들고
風霆下作護乖龍	바람과 우레 쳐서 이무기를 보호하네
公餘引路名山去	공무 여가에 길을 잡아 명산으로 가니
佛力攀梯異境逢	부처님 힘으로 사다리에 올라 기이한 경치 만났네
搜勝不辭巾袂濕	경승을 찾느라 소매가 젖는 것도 사양치 않는데
禪樓已打午時鍾	절집에서 이미 정오의 종을 울리네

19) 〈그림 11〉, 〈그림 12〉 참조.



〈그림 15〉 정선 〈내연산삼용추도〉,
견본수묵담채, 21.1× 29.8,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6〉 정선 〈내연산삼용추도〉,
지본수묵, 56.1×134.7, 호암미술관

崔嘆湜이 시를 지었는데, 상평성 冬 자 운을 썼다.引자는 삼배 천이 훠손되어 글자가 제 모습을 많이 상실하였다. 내연산은 「遊內延山」 등 기행 시문이 많아 명소로 이름이 있었는데, 특히 1734년에 정선이 그린 내연산 그림으로 인해 자연 명승에 그치지 않고 문화 명승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²⁰⁾ 특히 정선의 두 그림과

20) 고연희는 2014 「조선시대 산수도와 팔경도 문화」 266면에서 팔경 문화를 문학적 정치적

비교하여 볼 때 내연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폭포임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상도명승도』에서도 폭포가 중심이 되고 있다.

3. 『경상도명승도』의 특징과 의미

이 병풍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지방에서 제작된 병풍화이지만 화격이 높다. 한 화가의 필치이며 전반적으로 복잡한 화면과 소밀한 화면의 조화를 이루면서 배치시켰다. 세부적으로 산석에는 준법의 사용보다 윤곽선을 그은 위에 멱색의 선염을 한 경우가 많아 조선에서는 19세기로부터 널리 유행한 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솔잎이 잔잔하게 위로 솟는 소나무와 일률적으로 처리된 잡목의 표현 및 유유자적하는 인물의 표현은 전통적인 문인화의 산수화법을 잘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담담하고 밝은 청색 및 자황색의 담채가 베풀어져 있어, 이 병풍이 처음 제작되었을 때는 경상도 명승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그림과 제화시에 보이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제시한다.

경상도 지역의 8 곳 명승을 뽑아 제작한 이 병풍에 장편 시를 써 넣은 〈만하정〉을 첫 폭에 배치하여 다른 폭과 차별하였다. 이를 통해 이 병풍의 제작이, 만하정이 소재한 통영과 유관하고 그 지방 사람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경상도명승도』의 문헌 노출 비교표를 만들어 그 추정을 뒷받침한다.

공간에서 비롯한 경우와 절경 산수와 같이 자연적 명승에서 비롯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내연산의 경우 겹재 이전에는 자연적 명승이었다가 겹재 이후엔 문화적 명승이라 말할 수 있다.

〈표 1〉 『경상도명승도』 저록 명승의 문헌 노출 비교표

순서	명칭	소재지	문헌검색수(문집 총간DB/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	嶺南名勝帖(鄭滉)	일본 幽玄齋 소장 嶺南三十五景 帖(18세기)	嶺南名勝 帖(金允兼)	八仙臥遊圖 (柳本正)/18 66년 이전	비고
1	挽河亭	통영	6/10	(세병관, 한산도제승당)	(한산도)	(한산도 제승당)	(한산도)	
2	映湖樓	안동	164/230	○	○			
3	海印寺	합천	224/1650	○(합천 홍류동)	○(합천 홍류동)	○	(가야산)	
4	蘆石樓	진주	318/372	○	○		○	
5	搜勝臺	거창	53/61					
6	沒雲臺	동래	98/81	○	○	○	○	
7	嶺南樓	밀양	289/361	○	○		○	
8	內延山	포항	48/43					

① ○ : 해당 문헌에 나온다는 표시.

② 괄호 안에 쓴 것은 『경상도명승도』에 속한 작품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참고가 되는 작품.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만하정은 수승대, 내연산과 함께 지명도가 떨어진다. 한산도를 그린 경우에도 이전 작품에는 한산도와 제승당, 세병관 등을 소재로 삼았다. 이는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시문을 살펴본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장 인지도가 떨어지는 만하정을 가장 비중 있게 그린 것을 통해 병풍 제작에 관여한 인물, 화가와 시인, 그리고 병풍을 그린 목적, 감상자 등이 만하정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²¹⁾ 이는 柳本正(1807~1865)이 1863년 무렵 『八仙臥遊圖』를

21) 한국고전번역원 종합DB의 문집총간과 역사문화종합시스템의 검색은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 명소의 대체적인 문헌 노출을 짐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 검색을 통해 보면 영호루, 해인사, 축석루, 영남루는 모두 100 단위 이상의 빈도수를 가지는데 비해 수승대, 물운대, 내연산은 빈도수가 100단위 이하로 크게 떨어지고 만하정은 노출 빈도가 특별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명승첩에서 한산도 지역이 늘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승대는 기존의 명승도에는 그려지지 않던 것이 새로 첨가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팔경도는 영호로, 해인사, 축석루, 물운대, 영남루 보다는 만하정, 수승대, 내연산을 경상도 지역의 8경으로

만들 때 자신의 집인 蓼蔭亭을 중앙에 배치하여 놀이판을 만든 것과 유사하다.²²⁾ 유본정은 유득공의 조카인데 서얼이고 오횡묵 역시 蓼園詩社에서 위향시인들과 자주 어울렸으므로 유본정의 고사를 알고 있을 것이다.

金允兼의 『영남명승첩』은 실제로는 영남 하도, 즉 오늘날의 경상남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데 반해, 이 병풍은 경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8경을 선정하였다는 데서 경상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 당시의 행정 구역으로 볼 때 영호루, 영남루, 내연산, 몰운대는 嶺南左道에 속하고 촉석루, 수승대, 해인사, 만하정은 嶺南右道에 속하여 정확히 반씩 안배되었다. 갑오경장의 23부제를 거쳐 이듬해 13도로 나뉘어 경상좌우도가 경상남북도의 행정권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4:4의 안배이다. 병풍의 소재가 고루 안배되었다는 점에서도 경상도의 민정을 책임지는 관찰사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제화시에서는 ‘觀風路’라는 직접적인 언급 외에도 관찰사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많다. 이는 뒤에서 서술한다.

제화시의 운자를 보면 누정에서 차운하는 한시 문화의 전통을 잘 알고 계승하고 있다. 영호루, 촉석루, 영남루에 쓴 제화시는 이전 시인이 쓴 시의 운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선현들이 앞 시대 문인의 시를 차운한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감히 스스로 다른 운자를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도 영호루, 촉석루, 영남루가 영남의 3대 명루라 한 것이 가늠되며, 이 시를 우연히 즉흥적으로 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실경산수화로 문화 공간을 그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병풍은 김윤겸의 『영남명승첩』 외에 경상도 지역의 명승을 집중적으로 그린 산수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조선후기 각 지역의 팔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지역의 명승팔경도 유행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20세기 초로 이어진 진경산수화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수화가 산수가 결핍된 곳이나 사람이 자신의 이상을 산

인식한 것을 눈여겨 볼 것을 요구한다. 특히 기존에 한산도 그림에 주요한 소재로 떠오르지 않던 만하정을, 그것도 팔경도의 첫 폭에 그려 넣고 시도 이해적으로 장시를 택한 것이 특징이다.

22) 『八仙臥遊錄』, 규장각 참고.

수에 투영하는 그림에서 출발해 18세기에 이르면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황산, 금강산, 후지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표적인 화가인 弘印, 鄭敵, 에케노 다이가(池大雅)의 화법을 따르게 된다.²³⁾ 이런 실지의 풍경을 寫景하는 산수화의 흐름 속에서 다시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관심과 지방 문화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문화권에서 그림의 제재를 선택하려는 경향에서 『경상도 명승도』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병풍에 그려진 그림은 모두 경상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명승을 그리고 있다. 자연 경승보다는 문화 명승에 치우쳐 있는데, 실경이면서도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변형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는 실경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선택적으로 경물을 그리고 그 경물 사이를 소요하는 사람의 한가한 태도와 그림을 그리는 화법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이런 문인화의 화법을 진경산수의 화법과 배합하여 구사한 것을 보면 圖畫署에서 발견된 畵師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한다.²⁴⁾

4. 병풍의 제작과 증여 인물 추정

이제 이 병풍의 그림과 제화시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을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을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이 병풍의 제화시를 살펴보면 이 병풍과 관계되는 2가지 사항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작 연대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병풍의 감상자이다. 첫 작품 「만하정(挽河亭)」에 나오는 ‘다른 군대와 달리 특별히 관직을 만들고 이어 통제부를 옮겨 세 바다를 관할하였네. 지금까지 태평이 이어져 300년이 지났는데 남면 바다에선 바람과 파도 일지 않았네.²⁵⁾’라는 구절을 통해 이 작품이 19세기 말경에서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보다 폭을 줄여서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

23) 한정희, 2012 『동아시아 회화 교류사』, 196면.

24) 이현주, 2007 「朝鮮後期 統制營 畵員 研究」 307면, 2008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 172면.

25) 「挽河亭」. 特設班位絕諸師, 仍徙營府管三隣. 至今昇平三百載, 風濤不作鷁鵬池.

난 1592년에 300년을 더한 1892년 이후 몇 년일 가능성성이 높다. 하한선도 1895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통제영이 1895년에 폐지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만하정」 시만 놓고 보아도 통제영이 없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마방목』과 고종대 『승정원일기』 등에 보이는 서상봉 관련 자료는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만하정」과 「수승대」 시에 공통으로 보이는 ‘觀風路’란 표현을 보면 영남 관찰사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 적힌 제화시들은 그 지방 수령과 특별한 연고가 있어 같이 다니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온다. 〈만하정〉 폭에서,

須臾制勝堂下泊
歌扇舞袖紛相隨
豪飲不覺日西下
去來都與潮信期

잠시 동안 제승당 아래 배를 정박하니
노래하고 춤을 추는 여인 분분히 따르네
호기롭게 마시느라 날 저무는 줄도 모르는데
오가는 것을 모두 조수 시간에 맞추어 하네

라고 하였는데, 통영에서 제승당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할 뿐 아니라 기생들의 가무를 구경하려면 인근 고을의 수령이거나 아니면 그 고을 수령과 막역한 친분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 마지막 구절에서,

文人弱管代雄劍
凱歌聲龢島山詩

문인의 약한 붓으로 보검을 대신하니
개선가 소리에 한산도 시로 화답하네

라고 하였는데, 이 시를 쓴 것이 어떤 대접의 사례라 보이는 대목이다. 다음 폭에 나오는 「映湖樓」에서,

傳廚風味真佳絕
鱠玉新登縮項槎

부엌에서 날라 온 풍미 정말로 맛 좋은데
회와 쌀밥 새로 올라 축향사두와 같네

라고 하여 식사 대접을 받은 자리가 영호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고을 수령과 특별한 친분이 필요하다. 「촉석루」 시에,

日暮催舟城下汎
衣香露浥徹宵游

해질녘에 배를 재촉해 성벽 아래 띄우니
옷에 찬 향 이슬에 젖도록 밤새도록 노네

라는 대목에 보이는 衣香이란 표현 역시 높은 신분을 나타낸다. 마침 촉석루 앞에 보이는 亭船은 이 시구를 연상하게 한다. 「수승대」 시에,

車裳沾潤溜
冠蓋翳林光
(중략)

紅裙文字飲
却恨此宵忙

수레와 관복은 계곡에서 튕기는 물방울에 젖고
모자와 일산은 숲 사이로 비치는 햇살에 어둑하네

기생과 함께 시 지으며 술을 마시니
이 밤이 바빠 가는 게 오히려 한스럽네

라고 한 대목은 특히 관찰사 내지는 고을 수령의 행차를 연상하게 한다. 「영남루」에,

烏紗影壓江鷗上
紅杏花飛駟馬邊
(중략)

黃昏易得佳期遠
獨自舍情倚錦

오사모의 그림자 강 갈매기 위에 비치고
붉은 살구꽃 수레 끄는 말에게 날리네

황혼은 쉽게 얻지만 아름다운 기약 요원하여
홀로 정을 머금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네

영남루 위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보아 관찰사가 이 시의 감상자로 추정된다. 「내연산」 시에도 역시,

公餘引路名山去
佛力攀梯異境逢

공무 여가에 길을 잡아 명산으로 가니
부처님 힘으로 사다리에 올라 기이한 경치 만났네

공무 여가에 명산을 돌아보는 것이라 하였으니 시적 주체가 관찰사나 지방 수령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예로 든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명승도는 관찰사를 주 작품 감상

자로 설정하고 있어 관찰사에게 선물로 증여된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 병풍에 그려진 8곳의 명승이 모두 경상도 지역에 있고 해인사와 내연산을 제외하면 모두 누정 명소이며 그 누정은 해당 지역의 아이콘과 같은 명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병풍 제작에 관여한 사람으로 周玄默(1834~1906)이 유력하다. 오횡묵은 인왕산 부근의 日涉園이나 七松亭에 모여서 칠송정 시회를 가졌다. 오횡묵의 호 荘園(채원)은 자기 집 초당의 이름인데 이곳에서도 시회를 자주 열었다.²⁶⁾ 그리고 지방에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있으면서도 문우들과 어울려 시를 짓곤 했다. 그는 1893년 1월부터 1894년 10월까지 고성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가는 곳마다 『叢瑣錄』을 남기는데 그는 이 병풍의 중요한 명승의 상당부분을 직접 가보고 시를 남긴다. 그의 문집 『총쇄록』²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장소	총간 면 수	비고
1	만하정	1권 12, 75면.	통제영 10절 1권 76면.
2	해인사	1권 112면.	홍류동, 농산정 시 1권 113면.
3	촉석루	1권 10, 73, 2권 11(시첩서)면.	
4	몰운대	1권 37면.	
5	영남루	1권 8, 80, 126, 172, 185, 216면.	

오횡묵은 통제영 직할 고을인 固城府使를 지냈다. 이 도표에 보면 영남루에 특히 자주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오횡묵이 교유한 南臯 鄭秉夏(1849~1896)가 1888년부터 1894년까지 密陽府使를 지냈기 때문이다.²⁸⁾ 특히 만하정에 가서 남긴

26) 허경진,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향 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27) 여기서 말하는 『총쇄록』은 한국문집총간 繢간 141권과 142권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문집은 일종의 총쇄록 선집의 형태이므로 총쇄록을 모두 조사하면 정보는 더 보충될 수 있다.

28) 『국역 고성총쇄록』 13면. 『外案考』 183면.

시가 2편 있다. 「만하정에서 마음껏 시를 읊다[挽河亭暢吟]²⁹⁾라는 제목의 연작시 3수를 먼저 본다.

亭上年年月
亭下滾滾波
波萬頃月千古
當此昇平聖世不遊何

정자 위엔 해마다 뜨는 달
정자 아래 도도히 흐르는 물결
만 이랑 파도에 천고의 달빛 빛나네
이런 태평성대를 맞아 놀지 않고 어이리.

析鳥啼暮堞
宿雲強半沈
白鷗眠蘆花汀
山碧水碧萬古心

저물녘 성침엔 까마귀 울고
구름은 반 너머 바다에 잠겨 있네
갈매기는 갈대꽃 핀 물가에 잠들고
산도 물도 다 푸른 만고의 마음.

鼾鼻皆少卒
徘徊老行人
此地無限意
安能挹彼長河洗兵塵

콘히 잠든 너석들은 모두 조무라기
배회하는 사람은 늙은 행인
이 곳에 무한한 애정 있거니
어떻게 하면 저 긴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의 티끌
을 씻을까

이 시는 오황목이 1886년 嶺南別餉吏로 갔을 때 지은 시이다. 솟구치는 분방한 감정을 같은 제목 아래 長短句 연작의 형태로 풀어내었다. 높은 누각에 올라 트이는 가슴과 안전에 들어오는 너른 조망이 호쾌하고 풍성한 감정과 함께 대국적인 염원을 이끌어 낸 것이다. 만하정은 이처럼 따로 제목을 정해 시 3편을 쓴 데 비해 같은 시기 統營의 다른 승경은 「統營雜詠十截」이란 제목으로 묶은 것을 보면³⁰⁾ 만하정에 대한 그의 애정이 확인 된다. 이어 「挽河亭」³¹⁾ 시를 본다.

29) 『叢瑣1』, 한국문집총간 繢 141권, 12면.

30) 「統營雜詠十截」 각 시의 말미에 적은 제목은 다음과 같다. 鑿梁廟, 鑿梁橋, 書齋, 龍華寺, 唐浦三千, 千尺樓, 受降樓, 戰船龜船, 閑山島, 制勝堂.

31) 상계서 75면.

縹渺危欄入紫烟
挽河猶似洗兵年
山疑掛鉤齊天插
海學彎弓匝地連
自是元龍高百尺
至今戎馬靖三邊
沈沙鐵戟淘磨盡
惟見漁商泛泛船

아득히 높은 정자 구름 속에 있어
은하수 당겨 병기를 씻을 듯 하네
산은 칼날 걸어 하늘에 꽂아둔 듯하고
바다는 활을 당겨 땅을 두른 듯하네
본래 원룡의 누대는 높이가 백척이니³²⁾
지금은 세 바다에 용마가 쉬는구나
모래에 묻힌 창 물에 씻겨 다 닳아지고³³⁾
동실 떠가는 고기 파는 어선만 보일 뿐.

이 시는 함안 군수로 재직한 1889~1893에 지은 시이다. 만하정이 매우 높고 또 방비를 튼튼히 하여 전쟁이 없는 태평을 노래하고 있다. 앞 시 세 번째 작품의 끝 구절 “어떻게 하면 긴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의 티끌을 씻을까?[安能挹彼長河洗兵塵]”와 뒤의 시 “은하수 당겨 병기를 씻을 들허네.[挽河猶似洗兵年]”라는 대목은 「만하정」시의 네 번째 구절 “누각은 은하를 끌어와 창날을 씻을 듯하네[樓觀挽河洗戟枝]”와 시상이 일치한다. 물론 이 표현은 시체인 만하정의 의미를 풀고 있는 것이 주된 것이라는 하지만 오흉묵과 만하정 시를 쓴 사람이 사유의 공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런 대목도 시의 작가를 추정하는 하나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오흉묵의 시와 이선조의 만하정 시에 공통으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비탄 같은 것이 나오지 않으므로 그 하한선은 아무리 늦어도 1905년 을사조약을 넘기 어려우며 보다 가까이는 명성황후 시해와 갑오경장이 소용돌이치는 1895년을 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오흉묵이 쓴 『固城叢墳錄』은 그가 부사로 발령 받은 1893년 1월 29일부터 후임 부사가 정해지고 인수인계 업무가 끝나서 귀경한 이후인 1894년 11월 29일까지를

32) 원룡은 東漢 사람 陳登의 자이다. 어느 날 許汜가 진등을 찾아갔을 때 진등이 한마디 대화도 하지 않고 자기는 침상에 눕고 허사는 침상 아래에 눕게 하였다. 이에 대해 劉備가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소인이었다면 원룡이 자기는 백 척의 樓 위에 눕고 그대는 땅에 눕게 하였을 것이다.” 하였다. 『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33) 두목(杜牧)의 <적벽(赤壁)>에 “꺾인 창 모래에 잠겼어도 쇠는 썩지 않아, 이것을 가져다 갈고 닦으니 전조의 것임을 알겠네. [折戟沈沙鐵未消 自將磨洗認前朝]”라고 한 표현을 인용하였다.

2책으로 꾸린 일종의 仕宦日記이다.³⁴⁾ 그는 이 『고성총쇄록』 3월 19일 일기에 읍지에 수록할 내용을 대대적으로 저록해 놓았는데 누정 조에 통영에 있는 누정으로 洗兵館, 受降樓, 鎮海樓 등과 함께 만하정을 소개하고 있다.³⁵⁾ 그리고 5월 17일 일기에서 咸安 노인 3사람과 함께 아들의 생일을 맞아 하루 종일 포식하며 바닷가의 장관에 洗兵館, 受降樓, 挽河亭, 千尺樓, 江漢祠 등 여러 명승을 둘러보았다고 적고 있다.³⁶⁾ 그는 이해 6월 23일에 순찰사 李鑑永(이현영 1837~1907 : 재임기간 1890.12.19.~1893.02.26.)을 만나 부탁한 『여재촬요』 서문을 받는다. 그리고 후임으로 온 관찰사는 李容直(1824~? : 재임기간 1893.02.27.~1894.04.25.)으로 재임기간이 오횡 목의 부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³⁷⁾ 이 당시 통제사는 閔炯植(1859~ : 재임기간 1892.04~1894.03.)인데 그는 1882년(고종19) 임오군란으로 명성황후가 충주로 피신할 때 호종하였으며, 별천(別薦)을 시작으로 벼슬을 시작한 인물이다. 당시 통제사이던 민형식이 1902년 고종의 51세 생일 친찬을 맞아 중추원 의관의 신분으로 초대되기도 하였다.³⁸⁾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현영, 이용직 두 관찰사나 민형식이 퇴임할 때 선물로 만들어 주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물론 오횡목 본인이遞差되어 갈 때 선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일까?

1872년도에 그려진 〈통영지도〉를 보면 이 지역을 회화식으로 그렸는데 특히 조감도식의 방법을 사용하여 지역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밀하게 그린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교한 솜씨로 보아 전문 화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통영에서는 畵師軍官 한 사람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지도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³⁹⁾ 이와 관련하여 이현주는 통제영 화

34) 오횡목 2007 『국역 고성총쇄록』(역자 이성우) 17면.

35) 상계서 88면.

36) 상계서 191면

37) 『慶尙道先生案』下, 10~11면. 이용직 이후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趙秉鎬(재임기간 : 1894.4.25.~1895.5.8.)인데 1894년 7월부터 갑오경장이 시작되므로 유력한 인물이 아닐 가능성성이 높다.

38) 1902(고종39) 『進宴儀軌』 卷3 「內外賓 参宴內賓」

원들은 도화서화원이나 자비대령화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기량이 갖추어진 인물이 차관되어 일정기간 근무하였으며 재임기간 후에는 다시 궁중으로 복귀하여 의궤나 어진 제작 등 궁중 회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통제영에는 1823년 까지 화사가 파견되고 있다.⁴⁰⁾ 그리고 1894년에 경상우병영(진주 소재)으로 화사가 배치된 기록이 있다.⁴¹⁾ 지금 규장각에 전해지는 〈各船圖本〉과 1872년에 그려진 〈통영지도〉, 그리고 통제사 申觀浩(1810~1888)의 발문이 적힌 〈八賜品圖〉는 이들 화원들이 그렸을 가능성이 다분하다.⁴²⁾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경상도명승도』 역시 이들 화원이나 이 화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병풍의 제화시 작자들에 대해서는 고성이나 통영 인근에 사는 상당히 유식한 선비들이거나 오횡묵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읍지를 통해 당시 통영 지방의 성씨를 살펴보면 달성 서씨, 칠원 윤씨, 김해 김씨 등이 나오는 것도 고려해 둘만하다. 최근 통영에서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申光洙의 『關西樂府』의 계보를 이어 지역의 문물을 형상화한 『統海百八詞』를 쓴 南一元(1834~1894)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 있었던 걸 보면,⁴³⁾ 이 당시 통영 일대에는 널리 알려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역량을 갖춘 문인들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병풍에 제화시를 남긴 인물들을 추적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추정한 것을 정리해 보면 이 병풍은 1893년 고성군수 오횡묵이 주관자가 되어 전임 관찰사 이현영이나 시임 관찰사 이용직, 당시 통제사이던 민형식에게 재임시 혹은 퇴임시 선물로 중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오횡묵 자신이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시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관찰사인 이현영이나 이용직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횡묵과의 관련성으로 보자면 『여재촬요』의 서문을 써 준 이현영에게 선물로 주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특히 『여재촬요』의 서문에서 이 현영이 ‘서원, 누대의 흥폐’를 거론한 점을 보아 그러하다.

39) 서울대 규장각 지방도 『통영지도』 해제.

40) 이현주, 2007 「朝鮮後期 統制營 花院 研究」, 『石堂論叢』, 316, 307면.

41) 이현주, 2008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 『문물연구』, 172면.

42) 이현주, 2007년 상계서 319~320.

43) 이은주, 2010 「『統營百八詞』의 지방 형상화 연구」.

5. 맷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규장각 소장 『경상도명승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 병풍의 제작과 증여 인물 등에 대하여 추정해 보았다.

이 병풍은 경상도 지역의 8곳 명승을 그리고 상단에 제화시를 적어 넣은 8폭 병풍으로, 그 중 제 1폭 <만하정>은 다른 폭과 구분된다. 만하정은 경상도 통영에 있는 정자로, 1893년 당시 고성 부사를 역임한 吳欽默이 1886년과 1889~1893년 기간에 들러 시를 지은 장소이다. 오횡묵이 부임할 당시 전임 관찰사 이현영은 오횡묵이 쓴 『여재촬요』의 서문을 써 준 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 시임 관찰사는 이 용직이고 통영의 통제사는 민형식이었다. 이 병풍은 당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오횡묵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였고 『여재촬요』의 서문을 써 준 이현영에게 선물로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병풍을 그린 사람은 당시 통영으로 파견된 화원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병풍의 제작 연대는 임란 300년이 지난 1892년에서부터 통제영이 폐지되는 1895년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병풍은 김윤겸의 『영남명승첩』 외에 경상도 지역의 명승을 집중적으로 그린 산수화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조선후기 각 지역의 팔경을 그림으로 그리는 명승팔경도 유행의 양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20세기 초로 이어진 진경산수화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이 병풍을 그린 화가와 제화시를 쓴 작가 등을 보다 정확히 밝히고 문화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논문투고일(2014. 10. 30), 심사일(2014. 11. 21), 게재확정일(2014. 12. 13)

참고문헌

1. DB 자료 및 원전 자료(역주 자료 포함)

한국고전번역원 DB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 朴能緒, 1992 『韓國系行譜』, 寶庫社.
- 徐真錫, 2003 『大邱徐氏世譜』, 뿌리문화사.
- 吳宜默, 2007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 _____, 2007 국역 『固城叢瑣錄』, 이성우 역.
- _____, 『輿載撮要』, 규장각.
- _____, 『叢瑣』1 (한국문집총간 속 141), 2012 한국고전번역원.
- _____, 『叢瑣』2 (한국문집총간 속 142), 2012 한국고전번역원.
- 迂耕書廬, 1989 『朝鮮名勝詩選』.
- 申義澈, 『外案考』
- 崔海鍾, 1973 『詩海韻珠』.
- 『清選考』, 장서각.
- 『八仙臥遊圖』, 규장각.
- 허종 외3인, 2005 『경상도선생안』, 국학진흥원.

2. 단행본 연구 자료

- 蓋國梁 主編, 『中華韻典』, 上海古籍出版社, 2004.
- 고연희, 2014 「조선시대 산수도와 팔경도(八景圖) 문화」, 『한국의 팔경문화』, 水原八景, 수원박물관.
- 국립춘천박물관, 2002 『우리 땅 우리의 진경』.
- 국사편찬위원회, 2007 「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두산동아.
- 민병수 외, 2003 『사찰, 누정 그리고 한시』, 태학사.
- 박은순, 2002 「眞景山水畫의 觀點과 題材」, 『우리 땅 우리의 진경』.
- 박정애, 2014 『실경산수화』, 성균관대출판부.
- 이은주, 2010 「『統海百八詞』의 지방 형상화 연구」.
- 이종목, 2008 「『팔선와유도』와 남승도 놀이」 『문헌과해석』.

- 이현주, 2007 「朝鮮後期 統制營 華原 研究」, 『石堂論叢』.
- _____, 2008 「朝鮮後期 在地畫員 小考」, 『문물연구』.
- 한정희, 2012 『동아시아 회화 교류사』.
- 허경진, 1999 「인왕산에서 활동한 위항시인들의 모임터 변천사」, 『서울학 연구』.

Abstract

A Study on *Eight Famous Views of Gyengsang-Province* found in
Kujanggak Collection

Kim, Jong-tai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o *Eight Famous Views of Gyengsang-Province*, a fold screen painting of eight panels which depict the eight famous spots in the Gyeongsang province, and to circumstantiate evidences surrounded the production of the painting.

Eight panels consist of four in the left side of Gyengsang province and other four in the right side there; the Manha Pavilion of Tongyeong, the Yeongho Pavilion of Andong, the Haein Temple of Hapcheon, the Chockseok Pavilion of Jinju, the Suseng Pavilion of Geochang, the Molun Pavilion of Donglae, the Yongnam Pavilion of Milyang, and the Naeyeon Mountain of Pohang. There are inscriptions describing scenic features and historical meanings on each panel. Among these eight views the first panel for the Manha Pavilion is the most important one because only this view has a particularly long poem and significant information for dating the production of this fold screen.

According to the poems and some evidences, O Heong-muk seems to do main roles in making this fold screen. O wrote poems after visiting to all the spots except for the Yeongho Pavilion, the Suseng Pavilion and the Naeyeon Mountain, and he composed many poems especially after the Manha Pavilion which is emphasized in the painting. More evidences about O's role are found; he worked as a governor of Koseong from 1893 to 1894 and he published *Yeojaechoalyo*. This fold screen painting seems to be made in the three years from 1892, the year after three hundred years, to 1895. A building called as Tongjeyeong which is described vividly in the inscription on the painting was disappeared in 1895. Besides, many lines of the inscriptions on the painting referred to the governor at that time.

Eight Famous Views of Gyengsang-Province looks to be painted by a competent professional painter who was working in the Gyengsang province. The painter tried to employ the style of literati -painting which was popular in the professional painting at that time. This screen is also a valuable record showing local prides and positive information of the place, comparing to the well-known painting, *Famous Views of Yongnam* painted by Kim Yungyeom.

Key words : *Eight Famous Views of Gyengsang-Province*, O Heong-muk, True view painting, literati-painting, inscription poem on painting